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십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십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십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6. 답안 연습은 문제지 맨 뒷장의 연습지를 활용하십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떤 개체의 단독성과 특수성의 구별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남자(여자)가 실연했을 때 그(녀)는 “**㉠ 여자(남자)**는 또 얼마든지 있잖아.”라고 위로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실연한 사람은 이 여자(남자)에게 실연당한 것이고, 그것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여자(남자)는 결코 여자(남자)라는 일반 개념(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리라. 개나 고양이라 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개나 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대체 불가능하다. 수많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는 사람은 각각의 고양이를 기억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그들은 고양이를 특수성이 아니라 단독성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소를 단독성을 가진 고유명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죽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휴머니즘’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병사로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군은 적이라는 집합의 한 사람이며 고유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만드는 거야. 네가 날 길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그게 관계를 만드는 거야. 길들이지 않고는 그것들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네가 정말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 줘. 일단 오늘은 이렇게 조금 떨어진 채로 앉아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만 봐. 그리고 내일 다시 나를 만나면 조금 가까이 앉는 거야. 이왕이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 주는 게 좋아. 네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너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행복해지겠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나는 너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지. …(중략)… **㉡ 네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장미꽃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네가 그 꽃에 바친 너의 시간이 있어서야. 네가 네 꽃을 길들이면서 함께 보냈던 시간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책임을 져야 해.

(다) 아이히만은 나치스 상부의 유대인 학살 명령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여 실행에 옮긴 장교다. 그는 나치 전범재판에서 인간을 학살한 데서가 아니라 상부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나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게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그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말하는 데 무능력함은 그의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the words)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뒷면에 계속)

(라) 우리는 세상사와 동떨어져서 정신적 에고이즘의 분위기로 퇴각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과제가 있다. 현대인 가운데에서 인간적·윤리적 정서를 온전하게 간직한 사람들을 별로 만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상당 부분 현대인들이 집단과 유대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도덕성을 그 집단을 완성시키는 추진력으로 제공하지 않고 그것을 끊임없이 조국이라는 제단에 제물로 바쳐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문화적·사회적 질서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몰락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조와 근본적으로 새로운 태도로 우리 스스로를 쇄신해야 한다. 즉 만약 우리가 사고하는 인간이 되겠다는 결심만 한다면, 혁명과도 같은 새로운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제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땀으로 바꾸고 싶다
 땀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전문

(바)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고요

 그대가 가고 난 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체통을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 이문재, 「푸른 곰팡이-산책시1」 전문

1-1. 제시문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 여자(남자)와 제시문 (나)의 ㉡ 네 장미꽃을 비교하시오. (250±20자) [15점]

1-2. 제시문 (다)의 ㉢ 튼튼한 벽의 의미를 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라), (마), (바)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50±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능력만큼 정확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상적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단한 믿음을 잘 보여 준다. 단 한 차례의 수능시험으로 모두를 줄 세우는 것이 가능하고 수능 만점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한국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회적 인정은 엄청나다. 시험으로 누군가의 능력을 재단할 수 있는 영역,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공고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능력주의 신화**는 시험의 승자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남들보다 우월하고, 이로 인한 불평등이 정당하다고 믿게 한다. 반대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간주되는 이들은 ‘능력이 없어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결국 능력주의는 구조적 요인과 차별, 행운이 미치는 영향을 은폐하고 우리의 위치를 ‘순수한 개인적 성취’로 포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증명하지 않는다. 시험과 능력주의는 절대로 구조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개인적 성취’는 순수한 의미의 개인적 성취가 아니며, 기득권 계층이 확보한 ‘그들의 몫’에는 개인적 노력과 재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기여가 분명히 존재한다. 능력주의는 공정하지 않으며 불평등을 해소해 주지도 않는다.

(나) 자유를 위한 투쟁의 가장 큰 목표는 법 앞의 평등이었다. 법과 행동에 관한 보편적 규범이 갖고 있는 평등성은 평등 중에서 자유에 공헌하는 유일한 유형이자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자유는 다른 종류의 평등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면에서 불평등을 낳기 마련이다. 불평등은 개인의 자유가 반드시 초래하는 결과이지만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서 도출되는 바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면 그 결과는 실제 지위상의 불평등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 앞의 평등과 물질적 평등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서로 충돌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을 뿐 동시에 둘 다 이를 수는 없다. 자유가 요구하는 법 앞의 평등은 물질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국가가 불가피하게 강제를 동원해야 할 때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겠지만, 사람들의 여건까지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열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차별적 강제를 정당화하는 건 자유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 (중략) ...

다원적 평등 체제는 전제(專制)와 정반대가 된다. 이 체제는 지배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일군의 관계들을 정립한다. 형식적인 어법으로 말한다면, 다원적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직에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선택될 수도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 취학의 우선권, 다른 취업 기회들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평등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평등한 관계에 있을 수는 있다.

(뒷면에 계속)

(라) ㉠ **공정성 내전**은 비정규직 문제에서만 불거지는 현상이 아니다. 소수자·약자 배려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집착과 능력 강조는 현실에서 ‘능력자에 대한 우대’라는 차원보다 주로 ‘탈락자·소수자·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형태로 발현된다. 사실 능력이란 개념은 모호해서 어떤 탁월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명확하다.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을 찾기는 쉽다. 그런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곧 자신의 지분을 지키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다. 그래서 공정성 내전은 금세 공정의 탈을 쓴 혐오 담론이 되고 만다. 소수자·약자 혐오를 추동하고 유지하는 핵심 동기 중 하나가 바로 능력주의다. 일부 극단적 담론들, 이를테면 이주 노동자, 여성 등을 향한 갖가지 혐오 표현들의 심층에 담겨 있는 정당화 논리 역시 능력주의였다. 한마디로 자격과 능력도 없는 이들이 무임승차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자원을 가져가고 있다는 논리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 평등의 토대가 무너진 능력주의는 인종주의와 구별 불가능해진다.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추앙해 마땅하다. 하지만 약하고 못한 존재는 벌레 취급해도 좋다! 이제 저 타락한 능력주의자들은 자신보다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 몫을 더 받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을 향해 증오와 혐오를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어진다.”

(마)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한 담론 절차를 강조하면서, 어떤 규범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 **합리적 의사소통**, 즉 이상적 대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하는 내용이 참된 명제이어야 하며, 제시하는 의견이 논쟁의 규범적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화 당사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의도 없이 말하는 바를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실제 담론 상황이 이러한 이상적 대화 상황에 부합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보편화 가능한 도덕규범에 합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중략) ...

그러나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은 종종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 **전략적 행위**로 치우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전략적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조작하거나 지배하는 목적 합리성에 기반한 행위이다. 이는 상호 검증 가능한 주장보다는 영향력 행사와 목적 관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공적 담론의 질을 약화시키고 참여자 간 상호 인정의 기반을 훼손한다. 이 과정에서 공론장은 합의 형성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장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의사소통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세계를 축소하고 공공적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약화한다고 경고한다.

2-1. 제시문 (가), (나), (다)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불평등의 의미를 비교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마)의 ㉡ **전략적 행위**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 **능력주의 신화**가 제시문 (라)의 ㉠ **공정성 내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의 ㉢ **합리적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인간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었다. 비록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도 나이가 차는 대로 노동력을 보탤겠지만 말이다. 최소한의 필요를 웃도는 적은 양의 잉여물이 생긴다 해도 전사나 사제 집단에게 돌아갔다. 기근이 닥칠 때는 전혀 잉여가 없는데도,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반면 전사와 사제들은 평상시처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까지 이러한 체제가 존속했고(그 이후에는 공산당원이 전사와 사제들의 특권을 계승했다), 동양에는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 …(중략)… ㉠ **근로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며 현대 세계는 노예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러시아 정부를 지배하는 신강령에는 서구의 전통적 가르침들과 전혀 판판인 것도 많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지배 계층들, 특히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 교육·선전하는 일을 담당하는 계층의 태도는 세계의 지배 계층들이 소위 ‘정직한 무산자’들에게 늘상 설교해 온 것과 거의 똑같다. 근면하라, 절주(絶酒)하라, 먼 장래의 이익을 위해 장시간 일하려는 의욕을 가져라. 심지어는 당국에 순종 하라는 것까지. 하나같이 재등장한 것들이다.

(나) 자본주의 경제는 무상이나 저임금으로 재생산 서비스 노동을 하며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대개 이 노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원래 여성적이기 때문에 여성이 금전적 보상을 아예 받지 않거나 거의 받지 않고 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진다. 저널리스트 세라 자페는 ‘여성의 일은 사랑이고, 사랑은 그 자체가 보상이며, 돈으로 더럽혀질 수 없다는 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면서 자본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밝혔다. 사랑의 노동은 집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격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활동이 매우 흔하고 일상적인 노동 유형인데도 현대 정치 담론에서는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은 자본주의 노동의 반대편에 있는 비정한 세상 속 우리의 안식처로 여겨지며, ㉡ **돌봄의 사유화**는 여성의 독립적 실존에 대한 법적 제약이 대부분 제거된 오늘날에도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다) 미래의 일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일자리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정의로우며, 창의성을 가져다 주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일자리는 원래 힘든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계가 인간 대신 노동을 하게 되어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일은 어떤 모습을 띠고 그 일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향유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미래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미래의 일자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돈이나 권력 이어서는 안 된다. 살아가는 동료나 이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정(認定)과 도움이어야 한다. 애덤 스미스도 『도덕 감정론』에서 아이디어, 도움, 동정심으로부터 우러난 호의를 서로 나누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경제적 교환과 함께 공동체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교환이 중요한 사회 발전 동력인 셈이다. 존중과 협력으로 성공과 기회의 발판이 되는 공동체를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자리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보상해 왔다. 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변호사의 지식에 대해, 의사의 의술에 대해,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의 기술에 대해, 청소부의 청소 행위에 대해 보상해 왔고, 이는 행위에 내재된 가치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을 로봇이나 AI가 담당 하게 될 때 더 이상 개개인에게 보상할 근거나 논리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보상해야 할 대상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에 내포된 가치다. 청소는 지구를 깨끗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것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도 그 일 자체가 지적 능력이 필요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지적 능력이 필요한 작업도 미래에는 오히려 AI가 훨씬 잘 수행할 것이다.

(뒷면에 계속)

(라) 돌봄은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호행위이긴 하나, 결코 호혜적이지도 않고 대등한 교환도 아니다. 호혜성이 없는 교환에서는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보면 돌봄을 받는 자가 돌봄을 하는 자보다 약자가 된다. 따라서 돌봄을 받을 권리에서는 제3자가 반드시 그 권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의 대리·대행으로 인해 돌봄을 받는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여기서 대등성을 담보하는 것은 계약관계이고, 금전적 보수이다. 돌봄의 유상성은 돌봄을 하는 쪽과 돌봄을 받는 쪽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돌봄은 무상일 때 사회적 가치가 높고, 유상일 때 사회적 가치가 낮은 **㉠기묘한 딜레마**와 마주친다. …(중략)… 노동은 타자를 위해 행할 때 대가가 발생한다.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 노동이고, 지불하지 않으면 부활 노동이다. 그런데 돌봄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은 이것이다. 바로 돌봄 행위는 돌보는 대상에게 충분한 보답을 받으니 그 이상의 보수는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가사라면 남편이나 가족이 감사해 하니, 육아라면 아이가 성장하니 그걸로 보답이 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감사를 표현하든 안 하든 케어 워커(care worker)는 돌봄 행위를 할 것이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돌봄을 제공한다. 감사를 받을 목적으로 돌봄을 하는 게 아니다. 그 행위에 기쁨과 감사, 보람이 수반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노동인지 여부와 상관없다. 그럼에도 여자의 손으로 돌봄을 할 경우에만, 또 같은 돌봄 노동의 범주 안에서 하급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독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보수’를 받는다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마) 여성들이 임금 노동에 접근할 기회는 늘어났지만, 조금 더 평등한 기회가 반드시 가정 내 노동 분업의 재구성을 불러오지는 않았다. 생계를 책임지는 남자와 살림하는 여자라는 모델이 임금 노동 영역에서 대체되었어도 비공식적 돌봄 제공에 관한 전제까지 필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전히 여성들에게만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중략)… 남성이 가정에서 가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가사 노동이 제도화된 노동 관계와 권력 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여성들이 가사 노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가사 노동은 몇 가지 허드렛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 착취의 관계를 함축한다.

(바) 여섯 명의 성인과 아이 하나가 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려면 종일 싱크대 앞에만 서 있어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는 건 나와 시모의 몫이었고 먹는 것은 모두 함께였지만, 치우는 건 며느리인 나 혼자만의 몫이었다. 내 목에 두른 앞치마가 마치 죄수에게 씌운 칼처럼 묵직하게 느껴졌다. …(중략)…

한 달 전 큰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떠올랐다. 공 서방의 안부를 묻는 큰엄마에게 거짓말하기가 싫어서 그냥 얼버무렸더니, 큰엄마는 부부 싸움이라도 했느냐며 웃었고, 남자는 아무리 커도 아이나 다름없으니 공 서방을 이해해 주라고 말했다. 늘 듣던 소리였다. …(중략)… 그녀에게 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보름 전의 것이었다. “미야, 큰엄마 말 들어라. 나 하나 불편하면 모두가 편하고 웃게 된다. 결혼해서 여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부처님이라도 알아주신다.”

3-1. 제시문 (가)의 **㉠** 근로의 도덕과 제시문 (나)의 **㉠** 돌봄의 사유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이를 각각 비판하시오. (300자±20자) [20점]

3-2. 제시문 (나), (마)의 논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라)의 **㉠** 기묘한 딜레마의 의미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 마지막 메시지를 비판하시오. (30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2026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논술고사 연습지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이 연습지는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문제지 및 답안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